

01 교회소식

주의 일에 충성스런 교회

어린이 공과 교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발간과 케냐 서부지역 발레 시에서 개최된 '목회자 세미나' 등 국내외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화평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화평'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다.

04 간증

“하나님께서 삶 속에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 추복 속에 간증이 넘치는 일본 한남회 집사, 그리고 요로결석을 치료받은 홍명일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797호 2017년 7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탄탄한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지혜를 쌓다!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6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7월 28일 발간을 앞두고 있다.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어린이 공과 교재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총 14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떤 축복

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깨달으며 주 안에서 선한 지혜도 터득할 수 있다.

특별히 '만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자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 보는 도입 부분이 있어 흥미를 더하며 '학습활동'을 통해 주요 내용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아울러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데 기초가 되는 창세기의 구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신앙 여정이 지도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두뇌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아동기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공되는 아동 공과 교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탄탄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외에도 『그림과 함께 보는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섭리』 등 17권의 어린이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가 있다.

우림북, 2017 CBA 국제 컨벤션 참가

전 세계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림북(www.urimbooks.com)이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CBA 국제 컨벤션에 참가했다. CBA(기독교서판매인협회)는 150개국 1,400여 개 기독교 출판사, 서점 등이 소속된 연합 단체이다.

우림북은 『천국』, 『지옥』, 『영혼육』, 『깨어라 이스라엘』 등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번역도서를 전시하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인도 등의 유력업체들과 협약을 이루었다. 또한 『천국』 책자 홍보와 천국을 연상케 하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의 공연 동영상 상영하여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CBA 커티스 리스키 회장(우측 네 번째)과 함께한 우림북 대표 노경태 장로

한편, 우림북 대표 노경태 장로가 CBA 한국대표 자격 'CBA 코리아 디렉터'로 선출됐으며, CBA 공식 매체와 코리아 타임즈, ANS 등을 통해 우림북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문서선교 사역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케냐 서부지역 발레 시 '목회자 세미나'



정명호 목사(예수교아 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가 케냐 내 600여 개 지교회를 둔 '믿음의 말씀 교단' 총회장 외위레 박사의 간청으로 지난 6월 21일과 22일, 케냐 서부지역 비히가 주 발레 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세미나에는 총회장들을 비롯하여 목회자와 교회 및 지역사회 리더들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 목사는 첫날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과 만민의 사역을 소개한 후 '권능' 비디오를 상영했다. 그 뒤 세미나 시 증거되는 말씀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깊은 기도 속에 풀이받은 것임을 전했다. 6월 21일 오전에는 '창조의 섭리', 오후에는 '인간 경작의 섭리', 22일에는 '육기 강해'를 강의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정명호 목사가 환자기도를 해 주자 척추디스크, 편마비, 관절염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등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겂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35~36)

겂옷을 팔아 검을 사라

당시 유대인들은 긴 셔츠와 같은 옷 위에 겂옷을 겂쳐 입었는데, 일종의 외출복이었습니다. 겂옷은 예의상 입어야 할 뿐 아니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고 밤에는 이불삼아 덮고 잤지요. 또한 겂옷의 재질에 따라 신분과 부유한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겂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실제로 두 개의 검을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도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2. ‘검을 사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되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했지요.

검을 가진 사람이라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가 미혹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마 4:4).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들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영

으로 온전히 양식 삼지 않으면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에 속아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하와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키니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혹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거나 ‘급한 일로 인해 어쩌다 한 번 주일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등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혹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느라 핍박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는 의심과 불만을 갖게 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는 말씀과 함께 참된 안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떠오르니 즉시로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일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는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마 5:1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20) 등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겂옷을 판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

‘겂옷’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애통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겂옷을 찢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는 마음을 찢는 애통함을 옷을 통해 나타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전반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말씀합니다. ‘두루마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며, ‘두루마기를 뺀다’는 것은 마음에서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된 것을 뜻하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겂옷을 내어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겂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재산을 버렸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영적인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겂옷은 매우 더럽고 악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에 그 앞에 나가면서 죄악으로 물든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했지요. 이러한 바디매오의 중심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더러운 겂옷을 내어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겂옷을 벗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마음을 깨끗케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선한 중심이었던 바디매오는 겂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겂옷을 팔라’는 것도 마음의 더러운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유창하게 설교해도 겂옷을 팔아 검을 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마음에 이루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단에게 미혹받아 비진리를 행하며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무찔러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영적 장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겂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겂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당부하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는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겂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겂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당부하신 이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며, 천국이 가까왔다고 전하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은혜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니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겂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화평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

주 안에서 '화평'이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화평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일 서운함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과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마치 검은색 잉크병을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병마개를 열고 주변에 뿌리는 것은 매우 다르듯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앞서 일하는 일꾼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불평, 불만

하는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입을 맞춘다면 사단의 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작은 것 하나에도 울무가 되어 부딪힘이 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판단하며 수군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별생각 없이 동조했다면,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속의 악이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원한다면 스스로 입술의 말을 조심하되 악한 비진리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선한 말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둘째,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한다!

주 안에서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김의 마음이 된다면 단지 겸손할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에게 유익한 것을 좇아 필요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화평이 깨어질 리 없다.

섬김이란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소금이 제 맛을 내기 위해 온전히 녹아지듯이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것이다. 항상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머리된 일꾼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시며, 모두가 마음 중심에서 먼저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와줌으로 영적으로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순종함으로 어찌하든 마음을 같이 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곧 섬김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 내 것, 내 욕심, 내 가족, 나 보기에 의로움, 내 고집 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사람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다.

진리를 들어 알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면 불편한 일들을 만날 경우 마음에 담아놓게 되고 언젠가는 변질되는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뜨리고 벗어버림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의 섬김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섬김의 마음이셨기에 끝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다. 이러한 참된 섬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해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한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고(출 32:32 ; 롬 9:3),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다(행 7:60).

하나님께서 싫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사랑으로 간구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적인 것이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좇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어찌해야 할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고, 야고보서 2장 15-16절에는 "단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했다.

이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며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다(행 4:32).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려면 상대를 변함 없는 믿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사랑으로 견디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가 잘될 것을 바라는 마음, 판단 정죄하지 않고 상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상대가 잘될 것을 바라봐 주는 마음, 곧 아같은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전 13:7).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 7. 16~7. 22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3-8
- 민음의 분량 1-3
- 공간과 차원 2-5
- 창세기 강해 29-35
- 요한일서 강해 11-15
- 죄의 뿌리와 성결 1-2
- 천국 6-12

GCN TV 설교

- 육과 영 5-9 (이수진 목사)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영목 목사)
- 목자님의 열매 1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2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40 (정구영 목사)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8
- 관능 스페셜 5
- 창조와 과학 22
- 모두 드려요 59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0
- 옛날 옛적에 (시즈) 3
- 마지막 때 6
- English 5
- 내 마음의 천양 39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7
- 독일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1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저는 10년 동안 갈수록 심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찢득한 눈물이 흘렀고, 가렵고 따가워 눈 주변이 헝글 눈꺼풀은 부어 있었지요. 안약을 넣고 약을 먹으면 증세가 가라앉았지만 얼마 후 다시 시작되곤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야마가타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점차 호전돼 먹는 약은 끊었지만 너무 심할 때는 안약을 넣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망함이 늘 있었지요.

2016년 7월, 믿음으로 치료받자 결단하고 안약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햄과 소시지, 계란, 닭고기, 새우 등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시작되었고, 미세먼지나 흙먼지에도 눈이 붓고 쓰라렸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순종하고 변개했던 것들을 회개하였지요.

그해 8월 초, 한국에서 열린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셋째 날 캠프파이어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증상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다음날 무안단물(출 15:25)터에 침수한 후에는 눈동자가 맑아진 느낌이 들

“치료와 응답, 축복!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한난희 집사 (45세, 일본 야마가타만민교회)

더니 이후 더욱 호전되어 어려움 없이 지냈지요.

2017년 5월,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일정 내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도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온전히 치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6월에 시력검사를 했는데, 양안이 1.0에서 1.5로 더욱 좋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칩니다. 과수원에서 라후라스(서양배)를 재배하는데, 꼭지 부분이

또한 저희 집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권능의 무안단물을 뿌려주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더니 8일 만에 3단 서랍장을 뛰어오를 수 있었고 20일쯤 지나자 온전히 회복되었지요.

이처럼 목자의 공간 안에서 역사되는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 인해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약해서 수확시기가 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크고 좋은 것들이 먼저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초, 수확을 앞두고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지킴받은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과수만 조금 떨어져 전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지요. 시아버님은 “과일 농사 2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무척 신기해하셨습니다.

남편 가네코 히로카즈 성도는 몇 년 전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는데 무안단물을 마시며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체험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었지요. 시아버님도 교회에 첫걸음을 하신 뒤 당뇨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시술 없이 22시간 만에 4mm 요로결석이 빠져나왔습니다!”

2017년 4월 22일 밤 11시경, 갑자기 오른쪽 배 밑으로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칼로 애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아 보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구토가 밀려왔고, 구토를 하고 나니 통증이 한결 줄어들었지요. 체한 것 같아 무안단물(출 15:25)을 마시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은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경, 다시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깰지요. 기다시피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CT촬영을 한 뒤에야 '요로결석'임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가장 큰 돌은 4mm 정도 된다고 하며 결석을 밖으로 꺼내는 시술을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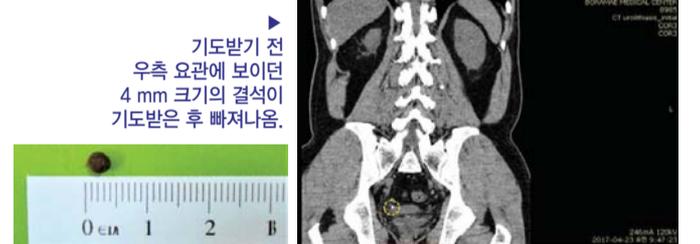
저는 집에 돌아와 하나님 권능으로 배출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무안단물을 마시고 당회장님의 ARS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그날 저녁 9시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무언가 추욱 하면서 밀려나오는 느낌과 함께 '탁' 하는 소리를 내며 변기 아래로 까만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2시간 만에 통증을 유발하던 4mm의 결석이 제 몸 밖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몸이 가볍고 시원해지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를 후에는 CT상에서도 보이지 않던 2개의 작은 돌까지 소변을 통해 빠져나와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홍명일 장로 (55세, 1대대 1교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해례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담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